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2년 4월 7일 (토)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1. 2012 국제 학술대회 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56)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 이재만 | 2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35) 금송아지 - 이종현 | 4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21) 연약-그 구속의 파노라마 5 - 김무현 | 7쪽 |
| 4.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동물 타조 - 대구지부 | 9쪽 |

인사말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순종, 연약한 우리를 위해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려고 하는 진화설과 인본주의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때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의 속임수이며, 거짓 속삭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창조과학사역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사탄의 악한 공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에 속한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담대히 창조주이자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감격을 누리시는 4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회원 강기태 올림 -

1. 2012 국제 학술대회 안내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5월 18일(금)-19일(토)에 수영로교회에서 “자녀와 함께 참가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5월 18일(금, 오후 5:30~10:00)에는 이브닝 컨퍼런스로 “엘레브”에서 저녁식사 후 “세미나”를 가집니다. 5월 19일(토, 오전 8:30~오후 18:00)에는 국제 학술대회로 오전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오신 창조과학자들의 특별강연을 함께 듣고, 오후에는 세션별로 풍성한 시간을 가집니다. 구체적 사항은 아래 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kacr.or.kr/bbs/view.asp?tn=news&key_id=4708&b_no=4515&page=1&category=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자녀와 함께 참가하는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

부모에게는 **창조신앙의 회복**을!
자녀에게는 **신앙의 강력한 도전**을 원하십니까?



공동대표





학예대표





일시 2012.5.19 (토) 08:30~18:00 **장소** 수영로교회 은혜홀

참수 **DoM 카페**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등록** 사전등록 1만원 (~5/12까지), 현장등록 2만원

체험교실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등록 : 사전등록 1만원 (~5/12까지), 현장등록 2만원 (체험활동비/개인선물/정식식사비 포함)

개화 농협 485-01-086134 (여금주 :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정병갑)

문의 및 등록 순혜경 간사 (010-4173-0067), 박영민 간사 (010-4210-1990)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창 8:12)

Then he waited yet another seven days, and sent out the dove; but she did not return to him again. - Genesis 8:12, NASB

노아가 다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놓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 현대인의 성경

He waited seven more days and sent the dove out again, but this time it did not return to him. - NIV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땅이 회복되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첫 번째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을 때 정결한 새인 비둘기가 살만큼은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을 때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땅을 그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을 더 기다린 **대홍수 후 287일 만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고 밖에 머물렀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을 때 새싹이 돋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비둘기가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호전되고 있기는 해도 방주 밖이 여전히 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물론 그 두 번째 비둘기가 집을 찾아오는 귀소본능에 의해 돌아왔을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낼 때 비둘기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주 밖의 상황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귀소본능(혹은 회귀본능; homing instinct)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 있는 것 같지 않다. 실제로 경이적인 귀소본능이 있는 새들은 비둘기 말고도 많이 있으므로 다른 새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림: Out of the Ark: Land of the Dove

출처: carolynleigh.com

어쨌든 일주일이나 세 번째로 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른 곳에서만 살고 싱싱한 곡식만을 먹는 특성을 갖고 있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제 감람나무가 새순을 낼 만큼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비둘기가 거주할 만큼 마른 땅들도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아홍수 일지는 대홍수가 시작됐던 순간부터 물이 불어 오르고 물러가는 과정뿐 아니라 물러간 후에 땅이 마르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날짜나 숫자적 묘사를 넘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의 행동과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실적 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방주를 언급할 때 그 규모, 비율, 건축기간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듯이, 지금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가지고 당시 기간과 상황의 변화뿐 아니라 노아의 심정과 지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므로 말씀자체와 당사자 속으로 들어가 읽으면 피상적으로 읽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으며 궁금했던 것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노아는 세 번째 내보냈던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땅에 말랐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노아는 또다시 두 달을 더 기다리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며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할 방주 밖의 동정을 파악하려는 노아의 모습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세를 보며 노아의 심정과 그의 하나님 경외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출처: <http://www.hisark.com> **창조**

금송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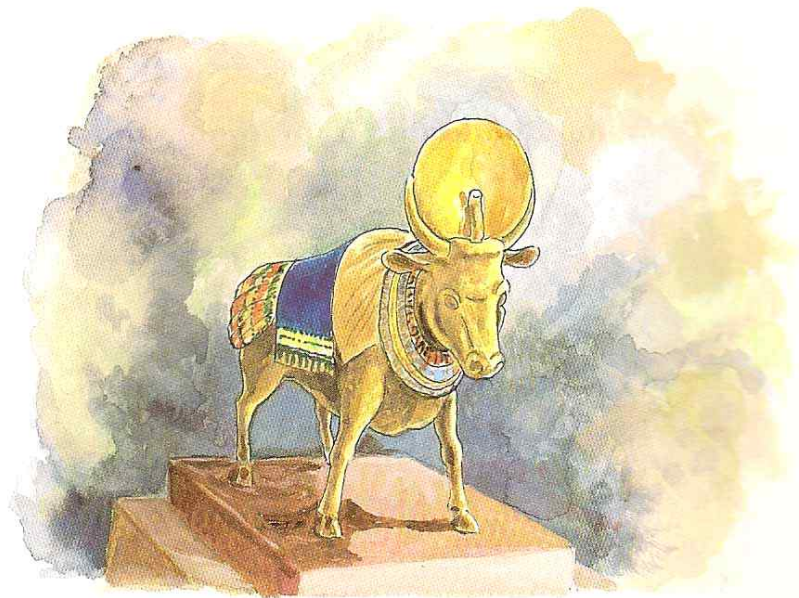
(The Golden Calf - Exodus 32)

이스라엘 백성들인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을 때 그들은 시나이산으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분의 율법을 주셨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집인 성막에 대한 평면도도 주셨다. 그러나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다.

황소 - 숭배의 상징

역사적으로 황소는 힘, 풍부한 곡식, 비옥한 추수 등의 상징으로 숭배의 대상이었다. 오늘날에도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황소를 신성시하며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성경시대에는, 여러 나라들에서 황소가 중요한 신으로써 세워졌다.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들 중에 '하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일강의 황소 신을 말한다. 바빌로니아인들과 시리아인들과 가나안인들도 역시 황소를 숭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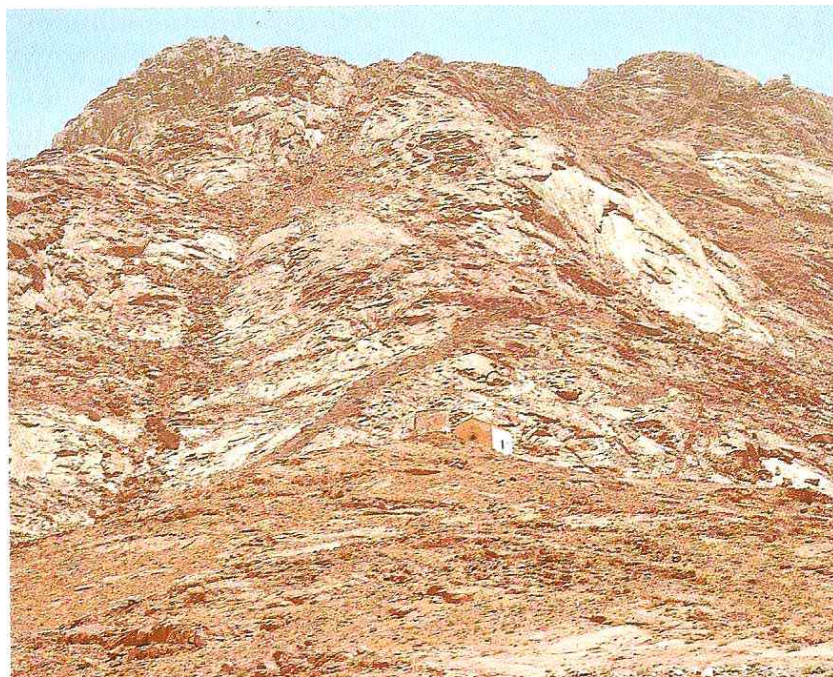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들은 이집트인 이웃들이 전에 여러번 행했던 것을 하는 것이었다. 아피스 황소 그림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몇몇 암소와 황소 신들 중의 하나였다.〉

‘아피스’ 황소는 이집트인들이 매우 숭배했던 또 다른 황소 혹은 송아지이다. 이 동물은 매우 진귀하며, 몇 가지 이상한 표시를 갖고 있었다. 앞이마에 있는 정사각형 표시와 혀에 있는 딱정벌레 모양의 표시가 아피스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이런 황소 중의 하나가 발견되면 이집트 전체가 축하를 했다. 그것을 죽여서 방부처리를 하고, 견고한 화강암으로 만든 관 안에 매장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피스 황소를 숭배하는 나라 가운데서 400년 이상을 살았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수일 동안 그들을 떠난 가운데, 알지 못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숙영을 하는 그들은 불안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직 친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그들에게 친근했던 황소를 숭배하면 뭔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금송아지 자체를 숭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대표하는 무언가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을 명백히 금지하셨다.

금속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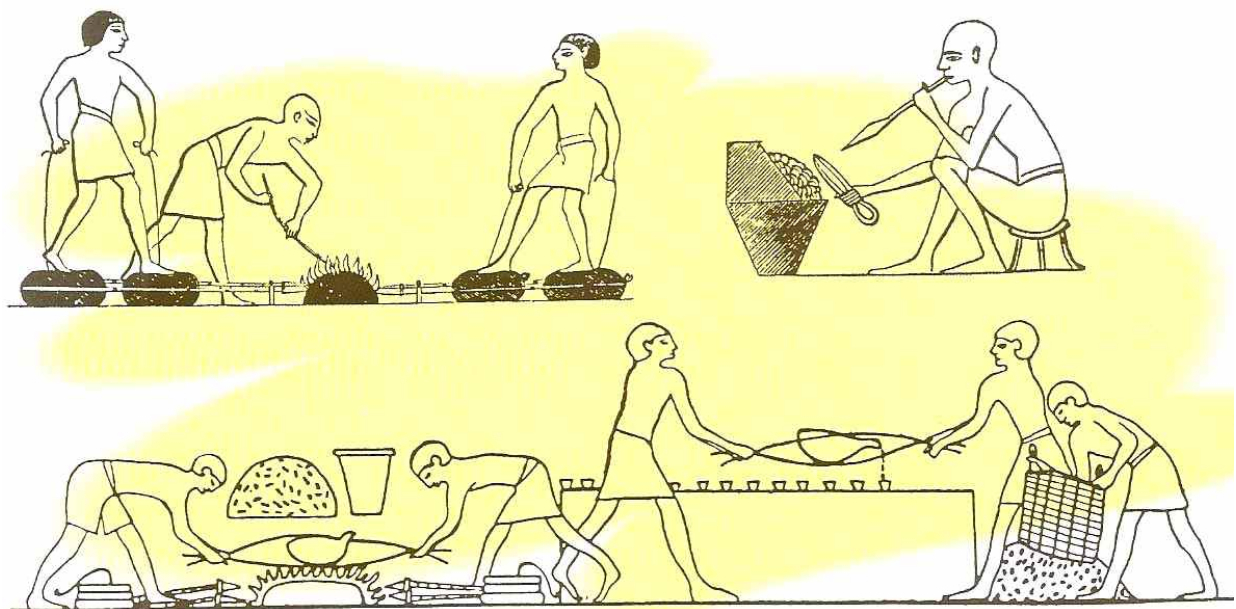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알려진 장소. 물론,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에 시내산이 있다고 여겨진다. 금송아지를 새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금속세공술을 배웠다.〉

금송아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과 주방용품을 가지고 만들었다(출 32:2-4).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일부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금속세공 기술을 배웠다. 그들이 아론을 도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 황소 혹은 송아지를 만들 때는 먼저 목재로 그것의 형상을 깎았을 것이다. 다음에는 금을 모두 녹여서 납작한 종이썩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굳었을 때, 이 종이썩 같은 것을 목재 황소에 덮어씌운 다음, 목재의 형상에 맞게 모양을 맞추고 두드려서 완성한다.

금은 어디서 왔을까?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어디서 이러한 귀금속을 가져왔을까? **하나님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God's tenth plague on Egypt: Death of the Firstborn)**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이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게 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이 최대한 빨리 그 나라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기들의 소유 중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다(출 12:35-36).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취했는데,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귀금속과 금은그릇을 빼앗았다. 그래서 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성막의 일부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만들었다. **참조**



〈이집트인들이 금속세공을 하는 이들 장면에서, 작업자들은 풀무와 불 부는 대롱을 사용하여 금속을 녹이고 있다. 작업자들은 금속에 열을 가해서 주물 속에 들어붓는다.〉

언약: 그 구속의 파노라마 5

(4) 죄의 확산 (From fig-tree leaves to animal skin)

창세기 4:1-15을 정독하십시오.

가인(언음)과 아벨(공허)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있었으며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창세기 4:2-4)

Abel was a keeper of flocks, but Cain was a tiller of the ground. ...

Cain brought an offering to the LORD of the fruit of the ground.

Abel, on his part also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of their fat portions And the LORD had regard for Abel and for his offering; - Gen 4:2b-4

하나님께서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는데(히브리서 11:4)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창세기 4:4-5)? 혹시 가죽옷과 무슨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히브리서 11:4)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서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열납하셨다.”라고 추론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4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즉 가인의 예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실 때, 자신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즉 오실 예수)이 대신 피를 흘려야 함을 기억하고, 그 어린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지내야 하며, 꼭 그러한 믿음을 지키라고 명하셨을 것입니다. 즉 가인과 같이 자신의 피와 땀과 노력만으로는 형식적인 제사(율법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칭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의 언약에 의해서만 속죄함이 가능합니다.

이제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점점 확산되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와 바벨탑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수명은 약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2권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려 합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더욱 심각해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극도로 이기적이며 쾌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등을 통하여 전해 준 구속의 피 언약들은 다 잊혀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10)

All that generation also were gathered to their fathers; and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who did not know the LORD, nor yet the work which He had done for Israel. - Judges 2:10, NASB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찾아 그 구속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고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대아 땅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며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씨(창세기 22:18, 갈라디아서 3:16)를 통하여 이를 그 놀라운 구속의 비밀들을 하나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네(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 2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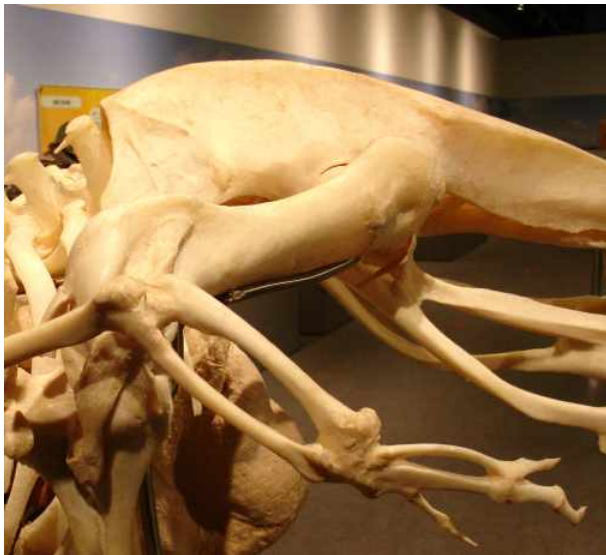
"I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y voice." - Genesis 22:18, NASB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 3:16)

Now the promises were spoken to Abraham and to his seed He does not say, "And to seeds," as referring to many, but rather to one, "And to your seed," that is, Christ. - Galatians 3:16, NASB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타조 (The Ostrich)



출처: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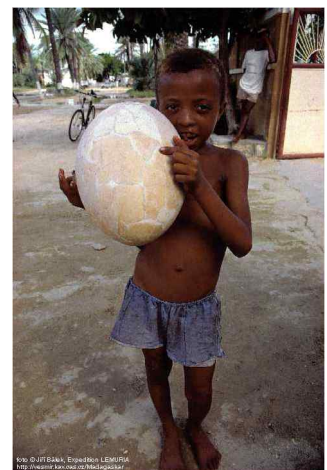
왼쪽 사진은 어떤 피조물의 일부 골격일까요?
네, 타조의 몸통과 허리 사이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살아있는 새 중에서 가장 커다란 새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도 답은 타조랍니다.

두 살에서 네 살이 되면 다 자란 어른 타조가 되는데, 수컷은 1.8미터에서 2.8미터까지, 암컷은 1.7미터에서 2미터까지 자란답니다. 여러분도 타조처럼 쑥쑥 잘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끼리새” (elephant bird)라는 별명을 가진 에피오르니스(aepyornis)는 키가 3미터에 알의 길이도 30센티미터 자 보다 4센티미터가 더 긴 34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 160개보다 더 큰 부피를 가진답니다.

그러면 타조는 알을 몇 개나 낳을까요? 한 번 알을 낳을 때 6~14개까지 낳고, 해마다 40~100개 (평균 약 60개)까지 낳는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 위험이 닥쳐올 때 머리를 흙 속에 묻어 버리는 행동을 하지만, 달리기는 한 시간에 70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출처: vesmir.msu.cas.cz

타조의 발을 직접 본 적 있나요? 예전에 어느 목장에서 기르는 타조농장에서 타조의 발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 때 어떤 아이가 “우와, 마치 공룡 발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조의 발가락은 두 개뿐이지만, 에뮤(emu)의 발은 정말로 공룡 발처럼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대홍수 전에 에뮤나 에뮤와 비슷한 피조물이 굳지 않은 부드러운 흙에 도망치면서 발자국을 남긴 것이 화석으로 남아서 조각류나 수각류의 발자국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타조 발

출처: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에뮤 발

출처: en.wikipedia.org/wiki/Emu

근데, 타조는 싸움을 잘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도 싸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싸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4절을 암송해 볼까요?



출처: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 Philippians 2:14, NIV

“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or disputing;”

이번 달엔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자주 암송해요^^*

저도 예전엔 싸움쟁이였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셔서 더 이상 싸움쟁이가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